

漢代 災異說의 一考察

— 眭弘의 上書와 宣帝의 即位 背景 —

鄭 東 哲

- | | |
|---------------------------|--------------------|
| I. 머리말 | (2) 公孫病已와 그의 側近人物 |
| II. 眭弘 上書에 보이는 災異現象과 그 解釋 | (3) 昌邑王 廢位와 病已의 即位 |
| III. 眭弘 上書의 政治的 意義 | IV. 眭弘 上書의 思想史的 檢討 |
| (1) 昭帝에 대한 不信과 眭弘 上書 | V. 맺는말 |

I. 머리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前漢 武帝期の 大儒學者 董仲舒가 天人相關論에 입각하여 災異說을 체계화한 이후, 이 災異說은 前漢 後半期の 政治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前漢 後半期 政治를 올바르게 理解하기 위해서는 災異說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까지의 災異說에 대한 연구도 대체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서, 특히 災異說의 政治的인 機能에 관한 연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¹⁾

1) 예컨대 李漢三, 「陰陽五行對於兩漢政治的影響」(上)·(中)·(下) 『大陵雜誌』 26-10, 11, 27-8, 9, 28-7, 8, 1963, 1964, 1965)에서는 陰陽災異說의 兩漢 政治에의 영향을 다음 6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① 天子는 災異로써 자기의 罪를 實하는 詔를 내렸다.
- ② 天子는 災異로써 大臣의 罪를 實하였다.
- ③ 臣下는 災異를 가지고 政治의 得失을 上書하였다.
- ④ 臣下는 災異를 政爭의 武器로 삼았다.
- ⑤ 漢代人은 災異에 의거해서 일을 행함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 단으로 災異說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災異說이 실질적인 政治의 무대에서 어떠한 意義를 지니는가, 즉 災異說에 대한 구체적인 事例 검토가 적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政治思想이 특정한 사건 또는 구체적인 政治狀況과의 관련 속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갖는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災異說 자체가 고도의 政治思想인 만큼 구체적인 災異論議에는 매우 복잡한 政治狀況이 얽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인 災異說의 事例 검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 하나는 災異論議의 政治的 意義에 대한 검토이다. 하나의 災異論議가 무엇을 의도하고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政治狀況을 반영하는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災異論議에 대한 思想史的 고찰이다. 하나의 災異論議에는 어떠한 思想이 담겨 있으며 그러한 災異論議는 災異說의 歷史的 展開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측면의 검토는 결코 독립된 것일 수는 없다. 災異論議의 政治的 측면의 검토는 思想史的 고찰을 심화시켜 줄 것이고, 또 역으로 思想史的 고찰은 당시의 政治狀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구체적인 政治狀況과 政治思想과의 相關關係를 살피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例 검토의 일환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昭帝 元鳳 3年(B.C. 78)에 있었던 眭弘의 災異上書이다. 이것은 後述할 바와 같이 당시 符節令이었던 眭弘이 요괴스런 災異現象을 이용하여 公孫病己(宣帝)의 황제 즉위를 주장한 대담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眭弘이 어떻게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眭弘 上書와 관련하여 당시의 政治狀況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上書에는 董仲舒 思想의 片鱗이 보인

⑥ 漢代人の 射策에는 대개 災異說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影山輝國, 「漢代における災異と政治」(『史學雜誌』90-8, 1981)은 災異發生時 宰相이 罷免되는 政治現象에 주목하고 그 意義의 變遷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다는 점에서 그 思想史의 意義 또한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災異論議의 事例 검토의 하나로 眭弘 上書를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먼저 眭弘 上書에 보이는 災異現象과 그것에 대한 眭弘의 解釋을 살펴 眭弘이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이어서 眭弘 上書의 政治的 意義, 다시 말해서 宣帝 即位의 政治의 背景을 武帝末부터 宣帝 即位를 전후하여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眭弘 上書의 思想史的인 면도 살펴 보고자 하는 바, 이것은 결국 宣帝 即位의 思想의 背景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眭弘 上書가 갖는 政治史的 意義뿐 아니라 思想史的인 면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하려는 것이다.

II. 眭弘 上書에 보이는 災異現象과 그 解釋

昭帝 元鳳 3年(B.C. 78)에 있었던 眭弘의 災異上書는 『漢書』 眭弘傳에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일이 검토하겠지만 우선 上書에 보이는 災異現象을 주목하고자 한다.

孝昭 元鳳 3年 正月, 泰山의 萊蕪山 남쪽이 흥흥하더니 수천명의 人聲이 들렸다. 백성들이 가 보니 큰 돌이 自立하였는데 높이 1丈 5尺, 크기 48아름, 땅속 깊이 8尺이었으며 돌 3개가 발이 되었다. 돌이 선 후 白鳥 수천 마리가 그 옆에 내려 앉았다. 이 때 昌邑에서는 마른 社木이 쓰러졌다가 다시 살아났다. 또한 上林苑에서도 큰 버드나무가 잘리어 땅에 쓰러졌다가 역시 自立 살아났다. 벌레가 잎을 잡아 文字를 만들었는데 「公孫病已立」이라 하였다.²⁾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B.C. 78년에 다음과 같은 災異現象이 나타났다.

- ① 泰山: 큰 돌이 自立했다.
- ② 昌邑: 죽은 社木이 살아났다.

2) 孝昭元鳳三年正月 泰山萊蕪山南匈匈有數千人聲 民視之 有大石自立 高丈五尺 大四十八圍 入地深八尺 三石爲足 石立後有白鳥數千下集其旁 是時昌邑有枯社木臥復生 又上林苑中大柳樹斷枯臥地 亦自立生 有蟲食樹葉成文字 曰公孫病已立 (『漢書補注』 藝文印書館本 卷 75. 1a~b: 앞으로는 HS. 75. 1a~b 식으로 略記)

③ 上林苑 : 큰 버드나무가 다시 살아났고 벌레가 「公孫病已立」이란 文句를 만들었다.

는 현상이 그것으로, 泰山, 昌邑, 上林苑은 각각 災異 發生地를 가리킨다. ①과 ③에 관해서는 『漢書』 昭帝本紀에도 간단한 언급이 있고,³⁾ 前漢末까지의 中國 古代의 災異를 정리한 『漢書』 五行志⁴⁾에는 ①, ②, ③ 모두를 자세한 해석과 함께 기술해 놓고 있다.⁵⁾ 그런데 위 의 災異現象은 그 형태별로 ㉠ 石自立 ㉡ 木復生 ㉢ 成文字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의 돌이 自立했다든가 ㉢에서 처럼 벌레가 文句를 만들며 잎을 갹아 먹었다는 현상은 B.C.78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漢書』 五行志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는 현상은 元帝때 2회, 成帝때 1회, 그리고 哀帝때 2회 등 前漢末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⁶⁾

위의 災異現象에서 우선 주목되는 점은, 그것들이 모두 오늘날의 안목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대자연의 異象現象으로 때때로 일어날 수 있는 日食, 地震, 洪水 등등과는 결코 그 성격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돌이 自立했다든가, 말랐던 나무가 쓰러졌다가 살아났다든가, 더우기 벌레가 文句를 만들며 잎을 갹아 먹었다는 현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理性的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漢書』 五行志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납득하기 곤란한 災異現象은 武帝

3) HS. 7. 7b. 참조.

4) 朴星來氏는 中國 史書의 災異 記錄에 대하여 대체로 두가지 견해, 즉 과학적인 업적으로 보는 견해와 정치적인 목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後者의 경우 漢代 災異와 관련하여 論亂이 있는 바, 漢代 각 황제의 治世 중에 일어난 災異의 數의 차이는 곧 지배자의 인기도를 나타낸다는 해석과 그와 반대로 황제의 인기도와는 관계가 없고 후대 역사가들이 災異 記錄을 위조했다고 보는 說이 있다고 하였다. (Park Seong-Rae, Portentography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46 1977. pp. 55-56 註) 本稿는 종래의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려는 의도의 하나로 작성된 것으로써, 中國 史書의 災異 記錄에 대한 筆者의 견해는 稿를 달리하여 언급할 작정이다.

5) HS. 27 中之上 29a. 中之下 6a. 참조.

6) HS. 27 中之下 6a~7a. 참조.

때까지는 거의 보이지 않다가 昭帝때 부터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인다. 다음 [表 1]은 편의상 『漢書』五行志에서 武帝와 昭帝때의 災異現象만을 뽑아 비교해 본 것이다.

[表 1] 武·昭帝期 災異現象 比較

時期	災異性格	災異現象			計
		天의 異常現象	地의 異常現象	妖怪現象	
武	帝	21	20	3	44
昭	帝	5	4	11	20

위 [表 1]에서 天의 異常現象이란 日食, 彗星, 大雨 등등 하늘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異常現象을 가리킨 것이고, 地의 異常現象이라는 것은 火災, 大旱, 蝗 등등 地上에서의 자연적 異常現象을 지칭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白狗가 冠을 물고 돌아다닌다든가, 쥐가 꼬리를 물고 춤을 춘다든가 또는 위의 B.C. 78년의 災異現象에서 본 것처럼 돌이 自立했다거나 쓰러진 枯木이 잎을 피우는 등의 怪奇한 현상은 妖怪現象으로 표현해 보았다. 天과 地의 異常現象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즉 때때로 일어날 수 있는 災異를 가리킨다면, 妖怪現象이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은 아닐지라도, 한편 우습기도 하고 대개는 理性으로 쉽게 理解되지 않는 災異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위 [表 1]에서 알 수 있듯이 『漢書』五行志에는 武帝때의 災異現象이 모두 44건 기록되어 있다. 武帝의 治世가 B.C. 140~87년의 53년간이므로 매년 평균 0.8건의 災異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昭帝時代의 경우 治世가 B.C. 86~74년의 12년간인데 災異는 모두 20건, 매년 평균 1.7건이 된다. 『漢書』五行志의 기록으로 보면 昭帝時代에는 武帝때에 비해 2배의 빈도로 災異가 發生한 것이다. 더우기 災異現象을 성격별로 살펴볼 때 武帝時代에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天·地의 異常現象이 41/44로, 당시 災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해 昭帝때가 되면 妖怪스런 災異가 11/20으로, 天·地의 異常現象을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 즉 昭帝時代에는 武帝

때 거의 보이지 않던 妖怪現象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眚弘 上書에 보이는 災異現象도 昭帝때부터 증가되는 妖怪現象의 한 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妖怪스런 災異現象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眚弘 上書에 보이는 B.C. 78년의 災異現象이 갖는 의미를 살피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기사를 주목해 보자.

별이 東郡에 떨어져 땅에 이르자 돌이 되었다. 백성들이 그 돌에 「始皇帝死而地分」이라 새겼다. 始皇帝가 이를 듣고 御史를 보내 逐問하였으나 다스릴 수 없었다. (이에) 돌 부근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 돌도 불살라 버렸다.⁷⁾

위의 기사는 秦始皇 36년(B.C. 211)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별이 떨어져 돌이 되었다는 것은 종종 있을 수 있는 隕石 現象을 가리킬 것이다. 위 기사는 이러한 隕石에 백성들이 「始皇帝死而地分」이라는 예언적인 文句를 새겼음을 나타내고 있다. 『漢書』五行志에도 보이는 이 災異現象은 예언적인 文句를 보인다는 점에서 B.C. 78년의 災異現象과 상통한다. 다만 後者의 경우 별레가 文句를 새기는데 비해 前者에서는 백성들이 새기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백성들이 隕石에 예언적인 文句를 새긴 것을 말할 것도 없이 자기들의 念願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秦始皇의 暴政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始皇帝死而地分」했으면 하는 생각을 隕石에 새긴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B.C. 78년의 災異現象 중, 별레가 새겼다는 「公孫病已立」이란 文句도 누군가의 염원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한다. 염원이 너무도 절실하여 별레가 새겼다고 꾸며낸 것으로 생각된다. 더우기 「公孫病已立」이라는 것이 「始皇帝死而地分」과 달리 매우 구체적인 염원임을 생각할 때, 그것은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정치적

7) 『史記』藝文印書館本 卷 6. 25b(앞으로는 SC. 6. 25b 式으로 略記)

인 의도를 직선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災異現象이라 하여 표현했을 뿐이다. 이러한 추론을 확대시켜 본다면 돌이 自立하고 나무가 살아나는 현상은 물론이고 昭帝期 이후 급증하는 妖怪現象 모두가 특정한 목적하에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⁸⁾

그러면 이와 같은 요피스런 災異現象들을 누가 만들어 냈을까가 궁금해 지지만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다. 다만 B.C. 78년의 災異現象의 경우, 眭弘 자신이나 또는 그와 정치적인 목적을 같이 했던 人物들이 조작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이다. 어쩌면 당시 民間에 떠도는 이야기를 眭弘이 上書를 올리기 위하여 이용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眭弘의 조작인가 아닌가는 확실치 않지만 그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조작된 이 災異現象을 이용한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眭弘의 정치적 의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그가 B.C. 78년의 災異現象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눈을 돌려 보자.

(眭)孟(=眭弘)이 『春秋』의 뜻으로 추론하기를 「돌·버드나무는 모두 陰類로써 下民의 象이다. 泰山은 岱宗之嶽으로 王者가 易姓告代하는 곳이다. 지금 큰 돌이 自立했고 쓰러진 버드나무가 다시 일어선 것은 人力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마땅히 匹夫에서 天子가 될 자가 있을 것이다. 마른 社木이 다시 살아났으므로 廢家인 公孫氏가 다시 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⁹⁾

위의 기사에 보이는 眭弘의 해석은 다음 [表 2]와 같이 圖式化할 수 있다.

[表 2] 眭弘의 災異 解釋

㉑ 돌·버드나무	: 陰類→下民의 象
㉒ 泰山	: 岱宗之嶽→王者가 易姓告代하는 곳.
㉓ 큰 돌이 自立함 쓰러진 버드나무가 다시 섬	} 人力으로 될 수 없는 것 →匹夫에서 天子될 자가 있음.
㉔ 마른 社木이 다시 살아남	

8) 그러나 大自然의 異常現象으로 나타나는 天地간의 災異는 政治的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는 있을지언정 조작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9) 孟推春秋之意 以爲石柳皆陰類 下民之象 泰山者岱宗之嶽 王者易姓告代之處 今

㉔에서 돌과 버드나무가 陰類이니가 下民의 象이라는 것은 앞에서 든 秦始皇 36년의 災異에 대한 『漢書』五行志의 「石 陰類也 陰持高節 臣將危君 趙高·李斯之象」¹⁰⁾이라는 해석과 흡사하다. 즉 陰陽說에 입각한 해석이다. ㉔의 경우 泰山이 岱宗之巖이므로 王者가 易姓告代하는 곳이라는 해석은 『白虎通』의 「王者易姓而起 必升封泰山何 教告之義也……萬物所交代之處也」¹¹⁾라는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泰山이 갖는 封禪상의 의미에서 나온 해석이다. 따라서 ㉔와 ㉕는 자연물의 성질에서 상징적 의미를 추론하는 해석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㉔의 해석은 ㉔와 ㉕의 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 분명하다. 下民의 象인 돌이 王者가 易姓告代하는 장소인 泰山에서 自立했고, 또 下民의 象인 버드나무가 다시 섰으니가 匹夫에서 天子될 자가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㉕의 경우 마른 社木이 다시 살아났으므로 廢家인 公孫氏가 다시 흥할 것이라는 해석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公孫病已立」이라는 文句는 버드나무의 앞에 새겨진 것이지 社木에 새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眭弘은 버드나무 앞에 벌레가 「公孫病已立」이라고 새겼으니가 公孫氏가 다시 흥할 것이라고 했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그는 社木의 復生을 이유로 들어 公孫氏가 다시 흥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㉕의 해석은 眭弘의 착오였을까. 아니면 眭弘의 교묘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명은 眭弘 上書의 政治的 意義를 살필 때 분명해 지리라 믿는다.

요컨대 B.C. 78년의 災異現象에 대한 眭弘의 해석은 匹夫인 「公孫病已」가 天子될 징조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眭弘은 昭帝가 「公孫病已」에게 帝位를 讓位해야 한다는 주장을 災異現象을 빌어 은근히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大石自立 僵柳復起 非人力所爲 此當有從匹夫爲天子者 枯死木復生 故廢之家公孫氏當復興者也(HS. 75. 1b)

10) HS. 27. 中之上 29a

11) 『白虎通德論』(四部叢刊正編) 卷 5. 1a. 封禪條.

Ⅲ. 眭弘 上書의 政治的 意義

昭帝가 「公孫病已」에게 帝位를 讓位해야 한다는 B.C. 78 년의 眭弘 上書는, 昭帝의 在位가 B.C. 87~74 년이므로 昭帝 即位후 9 년, 돌아가기 4 년 전의 일이다. 그러면 眭弘 上書가 昭帝 在位중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昭帝에 대한 不信은 어떻게 해서 생겼고 眭弘이 황제로 추대하려는 「公孫病已」란 누구이며 그 측근 人物들은 과연 누구들이나 등을 살피고, 나아가서 眭弘 上書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 보자.

(1) 昭帝에 대한 不信과 眭弘 上書

잘 아는 바와 같이 昭帝는 武帝의 뒤를 이어 帝位에 올랐다. 그런데 그의 即位는 결코 흔히 있을 수 있는 帝位繼承이 아니었다. 그는 武帝의 末子로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황제의 지위에 오를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武帝에게는 6 王子가 있었다. 衛皇后에게서 난 衛太子, 王夫人 所生의 齊王 闕, 李姬에게서 태어난 燕王 旦과 廣陵王 胥, 그리고 李夫人이 난 昌邑王 髡와 趙婕妤에게서 태어난 末子 弗陵이 곧 그들이다. 이들 중 원래의 황태자는 衛太子였으나 그는 B.C. 91 년의 巫蠱의 禍로 죽었고 齊王 闕은 어렸을 때 죽었으며 昌邑王 髡도 武帝가 돌아가던 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따라서 武帝가 죽음에 임하였을 때 살아있던 王子는 燕王 旦과 廣陵王 胥 그리고 末子인 弗陵 등 3 명이었는데 衛太子가 죽은 뒤 황태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¹²⁾

황태자가 결정된 것은 武帝가 돌아가기 바로 이틀전이었다. 이 때 趙婕妤가 난 末子 弗陵이 황태자로 冊封되었다. 그가 곧 昭帝로서 그의 即位

12) 西嶋定生, 「武帝의 死——鹽鐵論의 政治史的 背景」(『古代史講座』11. 學生社 1965) pp. 159~160 참조.

過程에 관해서는 다음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征和 2年(B.C. 91) 衛太子는 江充에게 敗死당하였고 燕王 旦, 廣陵王 胥도 모두 파실이 많았다. 이 때 主上은 年老하였는데 寵姬인 鉤弋 趙婕妤에게 아들이 있자 內心 그를 後嗣로 삼아 大臣으로 하여금 輔弼케 할 것을 명하려 하였다. 여러 臣下들을 살피니 오직 霍光만이 大任을 감당할 수 있어 社稷을 위축할만 하였다. 이에 主上은 黃門의 畫者로 하여금 周公이 成王을 업고 諸侯들을 朝謁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여 霍光에게 下賜하였다. 後元 2年(B.C. 87) 봄 主上은 五柞宮에 遊幸해 있었는데 병이 위독하게 되자, 霍光이 울면서 「만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누가 後嗣에 당할 자입니까?」라고 물으니 主上은 「君은 이전 그림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가, 少子를 세우고 君이 周公의 일을 행하라」고 하였다. … (中略)… 主上은 (奉車都尉光祿大夫) 霍光을 大司馬大將軍, (侍中駙馬都尉光祿大夫) 金日磾을 車騎將軍, 그리고 太僕 上官桀을 左將軍, 搜粟都尉 桑弘羊을 御史大夫로 삼았는데 모두 침상 아래에 엎드려 버슬을 받고 少主를 보필할 遺詔를 받았다. 다음날 武帝는 돌아가고 太子가 尊號를 이으니 그가 孝昭皇帝이다. 皇帝 나이가 8세였으므로 政事는 일체 霍光에게서 결정되었다.¹³⁾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昭帝는 그의 兄인 燕王 旦, 廣陵王 胥가 생존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帝位에 올랐다. 더우기 그의 나이 8세였으므로 霍光, 金日磾, 上官桀, 桑弘羊 등이 輔政을 하게 되었다. 『漢書』 車千秋傳에 의하면 이 때 丞相이었던 車千秋도 輔政을 함께 할 遺詔를 받았다고 한다.¹⁴⁾ 아무튼 昭帝의 황제로서의 지위는 霍光 등의 攝政으로 지켜질 수 있었고 霍光 등의 攝政 또한 昭帝의 即位로 인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昭帝의 即位와 霍光 등의 攝政은 不可分의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昭帝에 대한 信任은 곧 霍光 등의 攝政과 직결되고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만일 어느 한 쪽에 대한 不信 不滿이 있으면 즉각 다른 쪽의 不信 不滿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少子로서의 皇帝 即位와 그에 따른 攝政이라는 것이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님을 생각할 때, 昭帝에 대한 不信이 생길 여지는 처음부터 있었다고 할

13) HS. 68. 1b~2a.

14) HS. 66. 6b 참조.

수 있다.

霍光 등의 攝政과 관련된 昭帝의 即位는 즉각 燕王 旦의 反撥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衛太子가 죽은 뒤부터는 武帝의 長子로서 스스로 帝位繼承者로 자처해 왔던 人物이었기 때문이다.

高后時(惠帝의) 거짓 아들 弘이 皇帝가 되었으나 諸侯들은 8년 동안 拱手하였다. 呂太后가 죽은 후 大臣들이 呂氏들을 죽이고 文帝를 맞이하게 되자(弘이) 惠帝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天下가 알게 되었다. 나는 실로 武帝의 長子인데도 즉위할 수 없었고, 上書하여 立廟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도 않았다. 皇帝된 者가 劉氏일 지 의심된다.¹⁵⁾

라는 그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昭帝의 即位는 呂后 執權 때의 弘의 즉위와 상황이 비슷하므로 昭帝가 武帝의 實子가 아닐지 모른다고까지 생각했던 것이다.

昭帝에 대한 燕王 旦의 의혹은 자기가 황제로 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초상이 여러 臣下들을 제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또한(武帝의 公主인) 蓋主도(武帝를) 알현할 수 없었다는 것은 심히 괴이하다.¹⁶⁾

라는 燕王 旦의 말이나

궁중의 소문에 武帝가 죽자 여러 將軍들이 太子를 共立하여 皇帝로 삼았는데 나이 8,9세였고(武帝의) 葬禮때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한다.¹⁷⁾

라는 執金吾 郭廣意의 말에서 미루어 볼 때 昭帝 即位에 대하여 의심가는 바가 전혀 없지만도 않다. 사실상 昭帝 即位 다음 해인 B.C. 86년에 燕王 旦이 中山王의 아들인 劉長, 齊王의 孫인 劉澤 등과 함께 結謀하여 반란을 꾸릴 수 있었던 것도 昭帝 即位에 대한 의혹이 宗室들 사이에 상당

15) HS. 63. 9b~10a

16) HS. 63. 9a

17) 上同.

히 퍼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 반란 음모는 靑州刺史 德不疑 등에게 발각되어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昭帝에 대한 不信이 그의 即位 初부터 엄존했음을 말해주는 주목할 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¹⁸⁾

昭帝에 대한 不信이 宗室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巫蠱의 禍에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衛太子를 자칭하는 者가 B.C. 82년에 나타났는데 당시의 大臣들은 그 是非를 가리려 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였고, 더우기 이 때 長安의 吏民 수만명이 운집하여 그를 지켜 보았다.¹⁹⁾ 이것은 昭帝에 대한 不信이 백성들 사이에도 널리 퍼져 衛太子가 부활했으면 하는 염원마저 갖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사실상 衛太子 詐稱 사건 자체가 昭帝에 대한 不信이 팽배해 있었음을 드러내 준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그는 물론 衛太子가 아니었다.

昭帝에 대한 不信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霍光과 함께 攝政을 맡았던 上官桀, 桑弘羊 등마저 昭帝 廢位를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左將軍 上官桀은 본래 霍光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上官桀의 子인 安이 霍光의 長女와 결혼한 사이였고 霍光이 쉬는 날이면 上官桀이 그를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B.C. 83년 上官桀의 아들인 安의 女가 皇后로 되고 安이 票騎將軍에 임명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上官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皇后의 親祖父였지만 霍光은 外祖父에 지나지 않았고 더우기 父子가 모두 將軍이었는데도 權力은 여전히 霍光 手中에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上官桀 父子는 자기 霍光을 원망하고 있던 御史大夫 桑弘羊, 蓋主, 燕王 旦 등과 結謀하여 霍光을 살해하고 昭帝를 廢位시킬 것을 음모하기에 이르렀다.²⁰⁾ 이 사건은 上官桀과 霍光과의 內朝에서의 암투에 外朝의 中心人物인 御史大夫 桑弘羊이 가담한 것으로, 昭帝初부터 있어 왔던 內·外朝의 對立을 엿볼 수 있게 한다.²¹⁾ 이 昭帝

18) 燕王 旦의 반란에 대해 자세한 것은 西嶋定生, 위의 논문 pp.167~169 참조.

19) HS. 71. 2a~b. 참조.

20) HS. 68. 2b~4ab. 및 HS. 63. 10b~116 참조.

21) 內·外朝의 對立에 대해서는 西嶋定生, 위의 논문 pp.162~169 및 勞幹, 「論

廢位 음모는 결국 諫大夫 杜延年 등에게 발각되어 上官桀 父子와 桑弘羊 등은 B.C. 80년에 죽음을 당하고 만다.²²⁾

한편 上官桀 등의 謀反 음모가 발각되어 그것에 대한 取調가 진행되는 도중, 桑弘羊의 아들인 桑遷이 父의 故吏였던 侯史吳에게 도망갔었다. 그는 곧 체포되어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를 숨겨 주었던 侯史吳는 謀反事件을 다루던 廷尉 王平과 少府 徐仁에 의해 관대한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侍御史가 다시 實相을 조사하고서는 桑遷이 謀反者나 다름없으므로 그를 숨겨준 侯史吳는 은닉죄에 해당한다 하여 그를 放免한 廷尉와 少府의 탄핵을 奏請하였다. 그 후의 사태 진전은 다음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少府 徐仁은 丞相 車千秋의 女媖였으므로 (車)千秋는 수차 侯史吳를 辯護하였다. (霍)光이 들어 주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車千秋는 中二千石, 博士를 公車門에 불러 모아 吳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가를 의논케 하였다. 議者들은 大將軍 (霍光)의 지침을 알고 모두 吳가 不道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날 千秋가 衆議를 封書하여 올리니, 光은 千秋가 멋대로 中二千石以下를 소집했고 內·外가 말이 다르다 하여 마침내 廷尉 (王)平과 少府 (徐)仁을 下獄케 하였다. 朝廷은 丞相이 연좌될까 걱정하였다.²³⁾

위 기사의 內·外란 內朝와 外朝를 가리킨다.²⁴⁾ 즉 霍光을 우두머리로 하는 內朝와 丞相 車千秋를 長으로 하는 外朝사이에는 上官桀, 桑弘羊 등이 제거된 이후에도 여전히 알력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즉 上官桀, 桑弘羊이 제거된 이후에도 霍光에게는 반대세력이 엄존했던 것이다. 결국 侯史吳 문제와 관련하여 廷尉 王平과 少府 徐仁은 棄市에 처해졌고 丞相인

漢代的內朝與外朝」(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13, 1948), 增淵龍夫「漢代における國家秩序の構造と官僚」(『中國古代の國家と社會』弘文堂 1960), 그리고 雷田健之, 「前漢武帝期以降における政治構造の一考察」(九州大學 東洋史論集 9, 1981) 등 참조.

22) 上官桀 등의 謀反에 관해 자세히는 西嶋定生, 위의 논문 pp.181~184 참조.

23) HS. 60. 3b~4a

24) HS. 60. 4a 顏師古의 註.

車千秋는 霍光 측근인 杜延年의 도움으로 禍를 면할 수 있었다.

少府 徐仁 등이 棄市에 처해진 것은 B.C. 78년 4월의 일이다.²⁵⁾ 眭弘 上書에 보이는 災異現象이 일어난 것은 B.C. 78년 正月의 일이므로 上書가 올려졌을 때는 徐仁 등의 탄핵 여부가 한창 거론되던 무렵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眭弘이 친구인 內官長 賜와 함께 上書를 올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眭弘과 賜의 관직인 符節令, 內官長이 모두 少府의 屬官이기 때문이다.²⁶⁾ 少府 徐仁과 眭弘 등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는 분명치 않지만 徐仁의 탄핵문제가 한창 논의되던 시기에 上書가 올려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이다. 眭弘이 徐仁 사건을 계기로 上書를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眭弘은 眭仁을 매개로 하여 丞相 車千秋 등의 霍光 반대세력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昭帝의 讓位를 주장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昭帝의 讓位를 주장한 眭弘 上書는 霍光의 입장에서 고려했을 만한 일이었다.

霍光은 皇后가 寵愛를 독점하여 아들이 있기를 바랐으나 昭帝는 몸이 불편하였다. 左右(臣下) 및 醫者가 모두 아첨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禁內해야 한다고 하였다. 비록 宮人, 使令이라도 모두 窮袴를 만들어 머를 많이 하고 後宮도 감히 나아가는 자가 없었다.²⁷⁾

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昭帝는 後嗣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病弱하였다. 따라서 머지 않아 後嗣없이 죽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편 8세에 即位한 昭帝가 이미 15,6세가 되었으므로 몇년만 지나면 親政할 것임도 염연한 사실이었다. 더우기 昭帝의 皇后는 上官桀父子의 女이자 孫女였으므로 霍光이 그녀의 外祖父였다하더라도 皇后의 입장으로서는 父와 祖父를 죽인 원수임에 틀림없었다.

25) HS. 7. 8a 참조.

26) HS. 75. 1b. 및 註 참조.

27) HS. 97 上. 19a.

따라서 霍光으로서는 적절한 人物만 있다면 昭帝를 廢位시키고 다른 人物을 皇帝로 擁립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權力을 오랫동안 保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昭帝를 廢位시킨다는 것은 昭帝에 不滿을 품고 있던 자기의 반대 세력을 恢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霍光의 攝政과 관련하여 昭帝에 대한 不信이 줄곧 있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眭弘의 災異 上書는 霍光의 반대세력의 立場에서 뿐 아니라 霍光측의 입장에서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었다.²⁸⁾ 即 眭弘은 霍光의 당시 입장까지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것은 眭弘이 昭帝 대신 皇帝도 雍立하고자 했던 「公孫病已」라는 人物과 그 측근 人物들을 살필 때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2) 公孫病已와 그의 側近 人物

眭弘은 별레가 「公孫病已立」이라는 文句를 만들며 있을 잡아 먹었다는 암시적인 표현으로, 새로운 人物의 황제 即位를 주장하였다. 「公孫病已」의 病已란 B.C. 74년 霍光이 宣帝를 擁립할 때 上奏하는 내용 중에

孝武皇帝의 曾孫 病已는 武帝 때 詔가 있어 掖庭에서 양육되었는데 지금 나이 18세입니다.²⁹⁾

라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武帝의 曾孫이며 후에 宣帝가 되는 人物이다. 이를 앞에 姓처럼 公孫이라고 한 것은 그의 姓이 公孫氏였기 때문이 아니라 眭弘이 자기 주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붙였거나 아니면

28) 西嶋定生『中國の歴史』2, 秦漢帝國(講談社 1974,) p. 281에서는 이 上書가 昭帝를 폐하고 霍光을 帝位에 오르게 하려는 眭弘의 本意를 아부일지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霍光側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만한 上書임에는 분명하지만 霍光 자신을 帝位에 오르게 하려는 本意라는 해석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위에서 차차 밝혀질 것이다.

29) HS. 68. 10b.

그가 武帝의 皇太子였던 衛太子의 孫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붙인 것이 아닐까 한다.³⁰⁾ 하여튼 宣帝의 即位를 암암리에 주장하고자 했음은 분명하다.

病巳는 征和 2년(B.C. 91)에 태어났다. 태어난 지 몇개월 후 巫蠱의 禍가 있었다.³¹⁾ 이 때 衛太子와 그 夫人인 史良娣 뿐만 아니라 衛太子의 아들 즉 病巳의 父인 皇孫, 그의 妻 王夫人 등 모두가 죽음을 당하였다. 이때 病巳도 함께 옥에 갇혔으나 당시 廷尉監이었던 丙吉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갇힌 지 5년만에 大赦令에 의해 풀려난 病巳는 祖母인 史氏집에 보내졌다.³²⁾ 그 후 病巳의 성장 모습은 다음 기사에 나타나 있다.

후에 詔가 있어 掖庭에서 보살피 기르며 宗正의 籍에 오르게 되었다. 당시 掖庭令 張賀는 일찌기 衛太子를 모셨으므로 舊恩을 생각하고 曾孫을 붙잡히 여기어 매우 극진히 양육, 私錢으로 책을 사주며 가르쳤다. 장성하자 暴室의 畜夫 許廣漢의 女를 얻어 장가를 들었는데 이 때문에 曾孫은 廣漢의 兄弟와 祖母家 史氏에 의탁하게 되었다. 東海人 濮中翁으로부터 詩를 배워 高材好學하였으나 游俠도 좋아하여 鬪鷄走馬하였고 또한 閭里的 奸邪와 吏治의 得失을 모두 잘 알았다.³³⁾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病巳는 官中の 掖庭에서 양육되었고 掖庭令이었던 張賀의 보살핌을 받았다. 또한 暴室의 畜夫 許廣漢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病巳를 양육했던 掖庭令 張賀는

처음에 (張)安世의 兄인 賀는 衛太子에게 충애를 받았다. 太子가 敗하자 賓客들은 모두 죽음을 당했으나 安世가 賀를 위해 上書를 올려 蠶室에 처해졌고 후에 掖庭令이 되었다.³⁴⁾

라는 기사에서 보듯이 衛太子에게 충애를 받던 빈객이었으나 巫蠱의 禍 때

30) 「公孫」은 宗室侯子의 孫이라는 뜻이 있다. (HS. 2. 3a. 補注 참조)

31) 巫蠱의 禍의 經過에 대해서는 HS. 63. 2b. ~6a.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2) HS. 8. 1a~2a 74. 7a~b 97 上 19b 참조.

33) HS. 8. 2a~b.

34) HS. 59. 9b.

腐刑을 당한 宦官이었다. 뒤에 病已의 丈人이 되는 許廣漢도 武帝 때 죄를 입어 宦官이 되었는데 掖庭에서 자라던 病已와 같은 官舍에서 지내던 人物이다. 그는 張賀의 권유에 의해 B.C. 76년 경 자기 딸을 病已에게 시집보냈다.³⁵⁾

掖庭令 張賀와 暴室의 畜夫 許廣漢은 모두 少府 소속의 宦官이었다. 上書를 올린 符節令 眭弘과 內官長 賜도 少府 소속임을 생각할 때 眭弘上書는 少府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秦始皇 때의 宦官 趙高가 符節令과 같은 符璽令의 일을 맡았던 사실로 미루어 보면³⁶⁾ 眭弘 자신도 宦官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는

眭弘의 字는 孟, 魯國의 蕃人이다. 어려서는 好俠하여 鬪鷄走馬하였으나 커서는 變節하여 嬴公으로부터 『春秋』를 배웠다. 經典에 밝아 議郎이 되어 符節令에 이르렀다.³⁷⁾

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커서는 학문에 관심이 깊었으나 어려서는 好俠했다는 점에서 病已와 공통점도 갖고 있다.

病已 측근에는 少府의 宦官 이외에도 주요 人物들이 몇몇 있었다. 우선 張安世를 들 수 있다. 그는 掖庭令 張賀의 동생이고 그의 小子 彭祖는 病已와 공부를 함께 하던 사이였다.

마침 左將軍 上官桀 父子 및 御史大夫 桑弘羊이 燕王, 蓋主와 더불어 謀反을 일으키다 誅滅당하자 (霍)光은 朝廷에 舊臣이 없다하여 (張)安世를 右將軍光祿勳으로 임명하여 자신의 副로 삼을 것을 아뢰었다.³⁸⁾

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張安世는 上官桀 등의 謀反 이후 霍光 政權의 제 2人者였던 人物이다.

또 病已의 복습을 살렸던 丙吉을 들 수 있는데, 그는 病已가 巫蠱의 禍

35) HS. 97 上 21b~22a 참조.

36) SC. 87. 7b.

37) HS. 75. 1a.

38) HS. 59. 7b.

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 여죄수를 시켜 양육, 보호케 하였고 그가 병에 걸리자 私財로 극진히 보살폈던 그야말로 病已의 恩人이다.

후에 (丙)吉은 車騎將軍軍市令이 되었다가 大將軍長史로 옮기었다. 霍光이 그를 매우 중히 여겼으므로 入朝하여 光祿大夫給事申이 되었다.³⁹⁾

라는 기사처럼 丙吉은 霍光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았고 睦弘이 上書를 올릴 당시 內朝의 光祿大夫給事申이었다. 그밖에 또 杜延年도 있다. 그는 病已가 자기의 中子인 佗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잘 알고 칭찬도 했던 人物이다. 杜延年是 B.C. 80년 上官桀 등의 謀反을 미리 발각한 功으로 諫大夫에서 太僕右曹給事申에 임명되었다.⁴⁰⁾

위의 病已 측근 3 人物 중, 張安世와 杜延年是 武帝 때의 유명한 酷吏인 張湯과 杜周의 아들이다. 둘 다 酷吏 子弟로서 특히 杜延年是 스스로도 法律에 밝았다. 또한 丙吉도 律令을 연구하여 魯의 獄吏가 되었던 점으로 보아 이들 3명은 모두 法律에 조예가 깊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武帝時代의 酷吏처럼 法律에만 밝았던 것은 아니다. 張安世는 책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尙書令에 발탁될 수 있었고 丙吉은 獄吏 출신이지만 후에 詩·禮 등을 배워 大義에도 능통하였다.⁴¹⁾ 또 杜延年是

霍光是 刑罰을 엄히 지켰으나 杜延年是 이를 관대히 하여 輔하였다.⁴²⁾

라는 기사처럼 法律萬能的인 酷吏는 결코 아니었다. 法律에만 밝았던 것이 아니라 官吏로서의 또다른 자질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더우기 이들이 霍光에게 커다란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霍光의 측근세력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霍光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를 살피는 것은 睦弘 上書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를 아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39) HS. 74. 7b.

40) HS. 60. 3a~b 참조.

41) HS. 59. 7a. 60. 3a. 74. 6b. 9a 참조.

42) HS. 60. 3b.

杜延年은 大將軍 霍光의 吏였다. 그는 吏材에 뛰어나 軍司空에 補해졌던 것이다. 丙吉은 위에서 보았듯이 大將軍長史였다. 여기서 大將軍이란 말할 것은 없이 大司馬大將軍 霍光을 가리키므로 丙吉도 霍光의 吏였던 셈이다. 그런데 霍光의 吏들은 霍光의 세력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기사를 살펴 보자.

蘇武는 전에 匈奴에 사신으로 갔었는데 20년 동안 항복하지 않고 돌아왔는데도 典屬國이었습니다. 그러나 大將軍長史(楊)敞은 功도 없는데도 搜粟都尉에 임명되었습니다. 또 莫府의 校尉를 몇대로 뽑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霍)光이 專權을 자행하니 非常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⁴³⁾

위 기사는 上官桀 등이 謀反하기 전에 燕王 묘으로 하여금 上書케 한 내용의 일부이다. 霍光의 權力 獨占에 불만을 품은 者들이 霍光의 吏들의 官界 進出에 신경을 쓰고 또 莫府 校尉의 人員 증가를 크게 우려함을 볼 수가 있다. 즉 霍光의 세력은 곧 이들 吏나 莫府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霍光의 吏와 莫府는 별개가 아니다. 吏는 대체로 莫府의 吏였기 때문이다. 將軍에 임명되면 府를 설치하는 것이 통례였다. 이 將軍府가 곧 莫府였다. 莫府에는 여러 명의 吏가 있었는데 특히 大將軍莫府에는 長史, 軍司馬, 從事中郎 등등의 吏가 두어졌다.⁴⁴⁾ 霍光 莫府의 이러한 吏들은 高位 官職으로 나아갔는데 이들을 表로 나타내면 다음[表3]과 같다.

[表3]에서 보듯이 杜延年和 丙吉 이외에도 田延年, 楊敞, 蔡義, 趙充國 등이 吏 出身으로 高位 官吏가 되었다. 특히 이들은 B.C. 80년 上官桀 등의 謀反 이후 高位 官職으로 나아가는 현상이 두드러진 바, 霍光의 세력기반을 이루던 吏들이 B.C. 80년부터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되었음

43) HS. 68. 3b.

44) 莫府의 史에 관해서는 大庭脩, 「前漢의 將軍」(『東洋史研究』26~4. 1968) pp. 101-102. 및 楊樹藩 『西漢中央政治制度與法儒思想』(臺灣商務印書館 1967) p. 139 참조.

〔表 3〕 霍光의 吏 畧신 官吏

이름	역임관직	출처
杜廷年	[軍司空]→校尉→諫大夫→太僕右曹給事中(B.C. 80)	漢書 卷 60
丙吉	魯獄史→廷尉監→車騎將軍軍市令→[大將軍長史] →光祿大夫給事中→太子太傅→御史大夫→丞相	" 74
田廷年	[給事大將軍莫府→長史]→河東太守→大司馬(B.C. 75)	" 90
楊敞	[給事大將軍莫府→軍司馬 또는 長史]→搜粟都尉→大司農(B.C. 80)→御史大夫→丞相	" 66
蔡義	[給事大將軍莫府]→覆盎城門候→光祿大夫給事中→少府(B.C. 78)→御史大夫→丞相	" 66
趙充國	補羽林→假司馬→車騎將軍長史→[大將軍護軍都尉] →中郎將→水衡都尉(B.C. 80)→後將軍→蒲類將軍 →後將軍少府	" 69

[] 는 吏의 명칭.

— 睦弘 上書時의 官職.

을 보여준다 하겠다.⁴⁵⁾

그러므로 病已의 측근에는 少府의 宦官들 만이 아니라 霍光 莫府 출신의 高位 官吏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少府의 宦官들이 앞에서 언급한 右將軍光祿勳 張安世와 掖庭令 張賀와의 관계를 매개로 이들 高位 官吏들과 연결될 수 있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된다. 睦弘의 上書는 바로 이들 官吏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올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昭帝가 엄연히 살아있는 이상 그를 폐하고 病已를 즉위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일 수 없었다. 당시의 高位 官吏들로서도 모험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掖庭令 張賀가 자기 딸을 病已에게 시집보내려 했을 때 張安世는 화를 내며

45) 霍光의 측근에는 이들 莫府 出身 人物뿐 아니라 霍光과 인척관계에 있던 官吏도 있었다. (HS. 68. 14a~b 참조) 그리고 後者보다는 前者가 病已와 밀접히 연결됨은 말할 것도 없다.

曾孫(病已)은 衛太子의 後孫이다. 다행히 庶人의 衣食으로써 朝廷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 다시는 말 주는 일을 거론하지 말라.⁴⁶⁾

라고 했고 病已의 자질을 칭찬했을 때도 번번히 제재하며 못마땅히 생각했다는 것은 病已를 황제로 即位시키기에는 시기상조였음을 나타낸다. 5년 후 眭弘의 주장이 현실로 바뀌어 病已가 即位했을 때 그는 張安世에게

掖庭승은 평생 나를 칭찬했으나 將軍이 이를 저지한 것은 옳다.⁴⁷⁾

라고 말했다 한다. 결국 上書를 올린 眭弘과 그의 친구 內官長 賜는 함부러 妖言을 만들어 대중을 현혹시켰다는 罪目으로 廷尉에 내려져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⁴⁸⁾

(3) 昌邑王 廢位와 病已의 卽位

眭弘의 災異 上書가 病已의 황제 卽位를 주장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昌邑王 賀의 卽位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眭弘은 昌邑에서 社木이 잎을 피우는 災異現象을 公孫氏가 다시 興할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公孫病已立」이란 文句는 上林苑의 버드나무잎에 벌레가 새긴 것이므로 이 해석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이다. 그러나 昌邑의 災異現象을 언급했다는 것은 昌邑王의 卽位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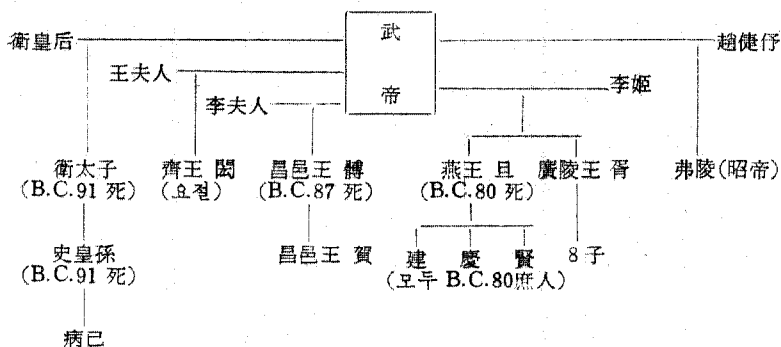
昌邑王 賀의 卽位 가능성은 다음〔表 4〕를 통하여 살필 수 있다. 위〔表 4〕에서 보듯이 眭弘이 上書를 올릴 당시 생존해 있던 武帝의 王子는 廣陵王

46) HS. 97 上, 22a.

47) HS. 59. 10a.

48) Wolfram Eberhard, The Political Function of Astronomy and Astronomers in Han China. *Chinese Thought & Institutions* ed. by J.K. Fairbank (Univ. of Chicago 1957) p. 61에서는, 攝政을 하던 霍光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眭弘을 처형하였다고 하였다.

〔表 4〕 睦弘上書時 武帝의 王子 및 그 後孫



胥뿐이었다. 그는 맨손으로 맹수를 잡을 만큼 힘이 세었고 노래를 부르며 놀기를 좋아하는 등 行動에 法도가 없었다.⁴⁹⁾ 따라서 攝政을 하던 霍光의 입장에서 볼 때 皇帝로 即位시키기에 적절한 人物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은 武帝의 孫子인 昌邑王 賀만이 남게 된다. 燕王 旦의 아들인 建, 慶, 賢 등은 B.C. 80년에 庶人이 되었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볼 때 睦弘이 昌邑에서의 災異現象을 언급하며 昌邑王 賀의 即位 가능성을 나타낸 것은 당시의 상황을 날카롭게 파악한 결과라 하겠다.

사실상 B.C. 74년 昭帝가 後嗣없이 돌아가자 昌邑王 賀가 即位하였다. 大臣들이 廣陵王 胥를 추천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는 논의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⁵⁰⁾ 그러나 皇帝가 된 昌邑王 賀도 행실이 문란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霍光은 그를 廢位시킬 결심을 하고 莫府 출신 官吏인 大司農 田延年과 상의하였다.⁵¹⁾ 물론 행실이 문란하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 실제로는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다음 일화를 주목해

49) HS. 63. 14b~15a 참조.

50) HS. 68. 4b. 참조.

51) 昌邑王 賀의 폐위 과정에 대해 자세한 것은 西嶋定生, 위의 논문 pp. 187~191 참조.

보자.

皇帝로 即位한 후 昌邑王 賀는 파리의 배설물이 제단에 쌓여 마침내는 지붕까지 덮는 꿈을 꾸었다. 꿈을 깨고 나서 이에 대해 昌邑의 郎中丞이 있던 龔遂에게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陛下는 詩經에 “잉잉대는 파리메야 울타리에 앉지마라. 어여쁘신 님이시여 讒言 믿지 마음소서”라는 귀절을 읽지 못하셨습니까. 陛下 측근에 讒言을 하는 무리가 많은 것은 파리메가 나쁘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마땅히 先帝 大臣의 子孫을 친거하여 左右로 삼아 昌邑의 故人을 멀리하지 않는 것같이 해야 합니다. 讒謗를 신용하면 반드시 凶咎가 있습니다. 詭禍를 福으로 만들고자 원하신다면 그들을 모두 축출해야 합니다. 臣이 먼저 추방당하겠습니다.⁵²⁾

라고 하였다. 또한 霍光이 皇太后的 권위를 빌어 昌邑王 賀를 몰아내고 그의 신하 200여명을 처형하려 했을 때 이들 昌邑의 신하들은 울부짖으며

마땅히 처단할 자를 처단하지 않아 오히려 亂을 당하였다.⁵³⁾

라고 말했다 한다. 위의 두 일화에서 皇帝로 된 昌邑王 賀가 昌邑의 신하들만을 親信하고 霍光 등 昭帝의 大臣들은 멀리 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까닭이 있었다 하더라도 即位한 지 한달도 채 안 된 皇帝를 廢位시킨 것은 眭弘의 上書를 계기로 病已의 존재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昌邑王 賀 대신 皇帝로 삼을 만한 人物이 있었으므로 재빨리 廢位시킬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病已가 光祿大夫給事中 丙吉과 太僕右曹給事中 杜延年的 추천에 의해 即位할 수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眭弘 上書 이후 病已의 即位 문제가 霍光 莫府 出身 관리들에 의해 이미 거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마침내 病已는 帝位에 올랐다. 그가 바로 宣帝이다.

宣帝가 비로소 即位하여 高廟를 알현할 때 大將軍 霍光이 膠乘하였는데 上은

52) HS. 63. 19b~20a.

53) HS. 68. 10a.

내심 그를 무서워하고 꺼려져 마치 등에 가시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 후 車騎將軍 張安世가 光을 대신하여 驂乘을 하자 天子는 여유있고 침착하게 몸을 풀며 매우 편안히 가까이 대하였다.⁵⁴⁾

라는 기사처럼 宣帝는 霍光과 자못 불편한 사이였으나 張安世와는 매우 가까웠다. 또 B.C. 68년 霍光이 죽은 뒤 霍光一族은 세력을 잃었지만⁵⁵⁾ 莫府 出身 관리들은 더욱 승진하여 丙吉의 경우는 御史大夫를 거쳐 丞相에까지 오른다. 이러한 사실에서 宣帝와 霍光 莫府 出身 官吏들의 밀착성을 더욱 느낄 수 있다.

Ⅳ. 眭弘 上書의 思想史的 檢討

前章에서는 昭帝가 宣帝에게 帝位를 讓位해야 한다는 眭弘 上書의 政治的 意義를 살피면서 宣帝가 即位하는 政治的 背景을 알아 보았다. 그러면 이제 그의 即位の 思想的 背景, 다시 말해서 眭弘 上書의 思想史的 意義를 검토해 보겠다.

우선 眭弘이 上書에서 부연 설명한 다음 기사를 주목해 보자.

(眭)孟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자 설명하여 말하기를 「先師 董仲舒의 “비록 繼體守文의 君主라도 聖人의 受命을 해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漢家は 堯의 後孫이므로 傳國의 運이 있다. 漢의 皇帝는 모름지기 天下에 물어 찾아 聖人을 구하여 帝位를 讓位하고 스스로는 은퇴하여 百里에 封해져 殷·周 二王朝의 後孫처럼 天命을 받들고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⁵⁶⁾

위 기사는 昭帝가 宣帝에게 讓位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說明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眭弘은 董仲舒를 「先師」라 칭하며 그의 말을引

54) HS. 68. 18a~b.

55) 霍光一族의 誅滅에 관해서는 西嶋定生. 위의 논문 pp.195~198 참조.

56) (眭)孟意亦不知其所在 即說曰 先師董仲舒有言 雖有繼體守文之君 不聖人之受命 漢家堯後 有傳國之運 漢帝宜誰差天下 求索聖人 禮以帝位 而退自封百里 如殷周二王後以承順天命(HS. 75. 1b. 2a)

用하면서 說明을 시작하고 있다. 眭弘이 董仲舒를 「先師」라 부른 것은 그가 嬴公으로부터 『春秋』를 배웠기 때문이다. 眭弘의 스승인 嬴公은 董仲舒의 弟子로서 昭帝때 諫大夫였던 人物이다.⁵⁷⁾ 이러한 眭弘의 學問系統으로 보아 그는 董仲舒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 기사의 내용도 董仲舒의 思想과 관련시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위 기사 가운데 「繼體守文의 君主라도 聖人の 受命을 해칠 수 없다」는 董仲舒 말부터 살펴보자.

「繼體守文之君」이란 受命帝王에 對立되는 用語로써 創業을 하지 않고 단지 先王으로부터 帝位를 이어 즉위한 君主를 말한다.⁵⁸⁾ 따라서 董仲舒 말이라는 이것은 帝位를 세습한 君主라도 聖人이 天命을 받아 帝位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眭弘이 董仲舒의 말이라고 인용한 이 부분이 董仲舒의 思想을 엿볼 수 있는 『漢書』 董仲舒傳이나 『春秋繁露』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있는 것으로써

天의 命을 命이라 한다. 命은 聖人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⁵⁹⁾

라든가

이제 新王이 반드시 制度를 개혁해야 한다 함은 그 道를 바꾸거나 그 원칙을 변경한다는 것이 아니다. 天으로부터 命을 받았으므로 易姓更王하여 前王朝를 계승한 王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⁶⁰⁾

등의 기사만이 보일 뿐이다.

眭弘이 引用한 董仲舒의 말과 위의 두 기사를 비교해 보면 그 觀點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前者의 경우 「繼體守文之君」의 한계성이 강조된 반

57) HS. 88. 22a 참조.

58) SC. 49. 1a 索隱 참조.

59) 天命之謂命 命非聖人不行(HS. 59. 15a)

60) 今所謂新王必改制者 非改其道 非變其理 受命於天 易姓更王 非繼前王而王者 (『春秋繁露』四部叢刊正編 3, 卷1. 4b. 楚莊王條 : 앞으로는 『繁露』 1. 4b 楚莊王條 式으로 略함)

면 後者는 天命을 받은 者의 積極성에 主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王은 天意를 받들어 백성의 性(=바탕)을 완성시킴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者이다.⁶¹⁾

라는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董仲舒의 政治思想은 어디까지나 天과 王權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王權의 절대성을 내세우려는데에 있었다. 그러나 眭弘이 引用한 말은 결코 그렇지 않아 君主라도 聖인이 天命을 받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制約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眭弘이 引用했다는 말은 결코 董仲舒의 말 자체일 수 없다. 董仲舒의 思想을 변형시켜 그의 말인양 引用했을 뿐이다.

眭弘이 董仲舒의 思想을 변형시킨 경우는 「漢의 皇帝는 모름지기……殷·周二王朝의 後孫처럼 天命을 받들고 따라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

董仲舒에 의하면 새 王朝가 서면 그 이전 二王朝는 王이라 하여 大國에 封하고, 二王朝 이전의 五王朝는 帝라 칭해서 小國에 封해야 한다고 한다.⁶²⁾ 새 王朝로부터 먼 者는 號는 높히되 封土를 적게, 가까운 者는 반대로 號는 낮추고 封土는 넓게 하여 歷代 잔존세력을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孔子가 魯의 素王으로서 『春秋』를 통하여 新王의 法度を 밝혔다는 그의 春秋觀⁶³⁾의 입장에서의 前 王朝에 대한 조치는 다음 기사와 같다.

『春秋』에서는 天에 應하여 新王의 일을 행하였으니 時正은 黑統이다. 魯를 바로 세우고 黑을 숭상한다. 夏는(帝라 칭하여) 밀쳐 내고 周는 親히 대우하며 宋은 멀리해야 한다.⁶⁴⁾

위에서의 黑統이란 董仲舒의 독특한 循環史觀인 黑→白→赤 三統說에서의

61) 王承天意以成民之性爲任者也(『繁露』10. 5b. 深察名號條)

62) 『繁露』7. 6a~b 三代改制質文條 참조.

63) 徐復觀 「先秦儒家思想發展中的轉折及天的哲學大系統的建立——董仲舒春秋繁露的研究」(『兩漢思想史』卷2. 學生書局 1976) pp. 345~346 참조.

64) 春秋應天 作新王之事 時正黑統 正魯尙黑 紂夏親周故宋(『繁露』7, 4a~b)

黑統을 가리키는 물론이다.⁶⁵⁾ 위 기사는 결국 『春秋』의 新王은 黑統에 맞
게 制度를 바꾸고 「細夏·親周·故宋」 즉 夏는 ‘帝’로, 殷의 後孫인 宋과
바로 이전 王朝인 周는 ‘王’으로 尊號하여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⁶⁾

이렇게 볼 때 眭弘 上書에 보이는 「殷·周二王朝의 後孫」이란 董仲舒
의 春秋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眭弘은 이를 확대해석하
여 漢王朝의 경우에도 적용시켰다. 災異現象이 곧 새 王朝가 나타날 天命
이므로 漢도 二王朝의 後孫의 지위로 물러나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董仲舒 思想에 대한 眭弘의 확대해석은 「漢이 堯의 後孫이므로 傳國의
運이 있다」는 이른바 「漢家堯後說」에서도 볼 수 있다. 이 說을 董仲舒가
주장했다는 증거는 『漢書』 董仲舒傳이나 『春秋繁露』 어디에도 없다. 그
러나

人의 王(周王)은 神農을 닮아 九皇으로 하고 軒轅을 皇帝라 改稱하였다. 이어
서 帝顓頊, 帝嚳, 帝堯의 ‘帝’號를 존속시켰고 虞를 밀쳐내 舜을 ‘帝’라 하여 小
國으로서 五帝로 취하였다. 아래로는 禹의 後孫을 杞에, 湯의 後孫은 宋에 존속
시켜 사방 百里로써 ‘公’號에 爵하고, 모두 고유의 服를 입고 禮樂을 행하며 先
王朝의 賓客을 칭하면서 朝謁케 하였다.⁶⁷⁾

라는 기사를 통하여 董仲舒가 생각한 黃帝(軒轅), 顓頊, 嚳, 堯, 舜의 五
帝와 夏, 殷, 周 三代之 歷代 王朝 系譜를 얻을 수 있다. 이 王朝 系譜
에 五行相勝說을 적용하면 黃帝가 土德이므로 다음 [表 5]와 같이 된다.

[表 5] 歷代 王朝의 系譜와 그 德

王朝名	董 帝	顓 頊	嚳	堯	舜	夏	殷	周
德	土	木	金	火	水	土	木	金

65) 三統說에 대해 자세한 것은 李威熊 『董仲舒與西漢學術』(文史哲出版社 1978) pp. 85~93 참조.

66) 「細夏·親周·故宋」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重澤俊郎, 「董仲舒研究」(『周漢思想研究』 改文堂書房 1943) pp. 174~177 참조.

67) 是故 人之王尙推神農爲九皇 而改號軒轅謂之皇帝 因存帝顓頊·帝嚳·帝堯之帝號 細虞而號舜曰帝 舜錄五帝以小國 下存禹之後於杞 存湯之後於宋 以方百里爵

그런데 董仲舒의 對策 중에

이제 漢은 大亂의 뒤를 이었으니 마땅히 周의 文을 약간 減損하고 夏의 忠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⁶⁸⁾

라는 기사를 미루어 볼 때 그는 漢이 秦을 무시하고 周를 직접 이은 王朝로 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漢은 金德의 周를 이은 火德의 王朝가 되며 이것이 堯의 德과 같으므로 여기서 眭弘이 「漢家堯後說」을 創出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董仲舒는 三統說에 입각하여 王朝循環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眭弘은 三統說 대신 五行相勝說을 바탕으로 한 五德終始說⁶⁹⁾을 받아들이고 이 說에 董仲舒의 歷代 王朝 系譜를 적용시켜 「漢家堯後說」을 내세웠다.⁷⁰⁾ 이 「漢家堯後說」이 바로 昭帝가 宣帝에게 讓位해야 한다는 理論的 근거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여튼 眭弘은 여기서도 董仲舒 思想을 자기 의도에 맞게 교묘히 변형시키고 있다.

眭弘이 董仲舒 思想을 변형시켰다는 사실은 兩者의 災異說을 살필 때에도 드러난다.

臣이 삼가 『春秋』의 文을 살펴 前代에 이미 행해진 일을 보고 그것으로써 天人 相關之際를 관찰하면 심히 두려운 바가 있습니다. 國家가 바야흐로 政道를 잃고 (피폐에) 빠질 때 天은 먼저 災害를 내려 譴告하고, (그런데도) 스스로 반성할

號公 皆使服其服 行其禮樂 稱先王客而朝(『繁露』 7.6b)

68) HS. 56. 16b.

69) 顧頡剛, 「五德終始說下的政治和歷史」(『古史辨』第五冊), p. 417에 의하면 五德終始說은 戰國末 鄒衍이 창시했다고 한다.

70) 「漢家堯後說」에 대해서는 종래에 상반된 견해가 있어왔다. 이 說이 眭弘에게서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眭弘이 公羊傳 뿐만 아니라 左傳에도 능통했기 때문이라는 견해(HS. 75. 1a 補註에 보이는 齊召南, 葉德輝의 說)와 이 說은 左傳에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眭弘의 시대에는 나올 수 없고 左傳이 유행되는 前漢末 後漢初의 찬입일 것이라는 견해(顧頡剛, 위의 논문 pp. 500~508 참조)가 그것이다. 한편 施之勉은 「漢家堯後說」이 董仲舒에게서 나왔다고 하였지만 「漢家堯後說出於董仲舒說」(『大陸觀誌』 7-8, 1954) 이 說이 董仲舒 자신의 說이 아님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줄 모르면 怪異를 내려 警懼케 하며 여전히 變을 모르면 파멸까지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天心이 人君을 仁愛하여 그 亂을 방지하려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無道한 세상이 아닌 한, 天은 극진히 (人君을) 지지하여 보전하려 하므로 (人君이) 할 일이란 모름지기 힘씀에 있을 뿐입니다.⁷¹⁾

라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董仲舒는 天이 君主를 仁愛하기 때문에 災害→怪異現象을 내린다고 생각하였다. 災害·怪異現象이란

天地의 物에는 일정치 않은 變故가 있다. (큰 것은) 일컬어 異라 하고 작은 것은 災라 한다. 災가 항상 먼저 나타나고 異가 뒤따른다. 災는 天의 꾸짖음이고 異란 天의 위압함이다.⁷²⁾

라는 記事처럼 災異現象의 大小를 가리킨다. 즉 天은 君主의 방자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災(害), 그 다음에는 (怪)異를 내린다는 것이 董仲舒의 災異說이다.⁷³⁾

이와 같이 董仲舒의 災異說은 어디까지나 專制君主에 대한 制裁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災異現象을 이용하여 豫言을 행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災異說의 예언화를 경계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그는 남득하기 어려운 災異現象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大自然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災異現象으로 족하였다. 그의 유일한 災異 上書가 火災라는 災異現象을 빌어 올리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⁷⁴⁾

그러나 眭弘의 災異說은 董仲舒의 경우와는 결코 같지 않다. 앞에서 살

71) 臣謹案春秋之中 觀前世已行之事 以觀天人相與之際 甚可畏也 國家將有失道之敗而天乃先出災害以譴告之 不知自省 又出怪異以警懼之 尚不知變而傷敗乃至以此見天心之仁愛人君而欲止其亂也 自非大亡道之世者 天盡欲扶而全安之 事在彊勉而已矣(HS. 56. 3a~b)

72) 天地之物 有不常之變者 謂之異 小者謂之災 災常先而異乃隨之 災者 天之譴也 異者 天之威也(『繁露』 8. 13b. 必仁且知條)

73) 日原利國 「災異と讖緯」(『東方學』 43. 1972) p.2에 의하면 董仲舒의 政治思想에는 政治權力에의 적응과 저항이라는 兩面性이 있는데 그의 災異說은 後者의 理論이라고 하였다.

74) 董仲舒의 災異 上書에 관해서는 HS. 56. 20a. 와 27 上 11a~b, 12a~b 및 伊藤謙計, 「董仲舒の災異說」(『集刊東洋學』 41. 1979) 참조.

였듯이 그 자신의 조작여부는 분명치 않다 하더라도 豫言的인 文句까지 있는 남득할 수 없는 災異現象마저 이용한다.⁷⁵⁾ 이렇게 災異說이 변화한 까닭은 무엇일까. 결국 眭弘의 災異說이 君主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를 제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나 君主의 讓位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董仲舒의 災異說에서 이탈된 모습을 보인 眭弘의 災異說은 讖緯說에 영향을 주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자.

(公孫)述은 符命·鬼神·瑞應之事物을 즐겨 만들어 망녕되게 讖記를 인용하였다. ……『籙運法』의 「廢昌帝立公孫」, 『括地象』의 「帝軒轅受命 公孫氏攬」, 『授神契』의 「西太守 乙卯金」을 인용하여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하였다. 皇帝(光武帝)는 이를 걱정하여 述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圖讖에서 말하는 公孫은 곧 宣帝이다……”라고 하였다.⁷⁶⁾

위 기사는 『華陽國志』 公孫述傳에도 보이는데 光武帝가 답하는 부분이 더 자세하다. 「乙子卯金」 「光廢昌帝 立子公孫」 등의 文句를 『西狩獲麟讖』에서 인용하고 있으며 「光廢昌帝 立子公孫」은 霍光이 昌邑王을 폐하고 宣帝를 즉위시킨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⁷⁷⁾

公孫述이 『籙運法』에서 인용한 「廢昌帝 立公孫」 등의 文句는 물론 자신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 光武帝가 인용한 위 文句는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해석은 각기 다르지만 위의 文句들이 眭弘의 災異 上書에서 볼 수 있는 「公孫病已立」이라는 文句와 흡사함이 주목된다. 즉 별레가 만들었다는 文句가 讖記에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眭弘의 災異說은 前漢末에 크게 유행하는 讖緯說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災異說에서 讖緯說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眭弘의 災異 上書가 차지하는 思想史的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75) 日原利國, 위의 논문 pp. 4~6에서 災異說의 예언화는 易學派의 영향도 있지만 春秋公羊學의 논리 속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76) 『後漢書集解』(藝文印書館本) 卷 13, 16b—17a.

77) 『華陽國志』(世界書局) 卷 5, 2a.

V. 맺는 말

지금까지 漢宣帝의 即位 背景과 관련하여 眭弘의 災異 上書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는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眭弘 上書에 보이는 B.C. 78년의 災異現象은 理性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現象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 下에 조작된 것이 아닐까 한다. 眭弘 자신이 직접 조작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가 宣帝의 皇帝 即位를 주장하기 위하여 조작된 妖怪한 災異現象을 이용했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宣帝 즉위를 주장한 眭弘의 災異 上書는 少府 徐仁 탄핵사건을 계기로 少府 소속 宦官들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들 宦官은 徐仁을 매개로 霍光의 權力독점에 불만을 품은 外朝側과 제휴하여 昭帝 即位 初부터 줄곧 있어 온 그에 대한 不信을 表出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上書가 霍光側의 입장도 염두에 두고 올려졌을 것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霍光으로서도 宣帝의 即位는 고려해 볼 만한 것이었고 특히 霍光 莫府 출신 官吏 가운데는 宣帝와 밀착된 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昭帝가 엄연히 살아 있는 이상 그를 廢位시키고 宣帝를 즉위시킨다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上書를 올린 眭弘 등은 처형되고 만다. 그러나 이 上書를 계기로 宣帝의 존재가 霍光側 人物들에 게 크게 부각되었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眭弘의 災異 上書에는 昌邑王 賀의 즉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한 결과라 하겠다. B.C. 74년 昭帝가 죽은 뒤 賀가 즉위하는 것도 宣帝가 즉위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昌邑王 賀가 皇帝로서 적합한 人物이 못된다는 판단을 내린 霍光은 마침내 莫府 出身 官吏들의 추천에 의해 이미 존재가 드러나 있던 宣帝를 即位시킨다.

이와 같이 宣帝 即位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眭弘의 災

異 上書에는 思想史的으로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漢家堯後說」이 그것이다. 이 說은 眭弘이 董仲舒의 思想을 변형시켜 創出해 낸 것으로, 그가 宣帝 即位의 理論的 근거로 내세우려 한 것임이 틀림없다. 즉 宣帝 即位의 思想的 背景이 되는 說인 것이다.

더우기 眭弘의 災異 上書에는 董仲舒의 災異說에서 이탈한 面이 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벌레가 文句를 새겼다는 妖怪한 現象을 들어 예언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眭弘의 災異說이 災異說에서 讖緯說로 넘어가는 교량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眭弘의 災異 上書는 政治史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思想史的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英文要約〉

A Discourse on the Extraordinary Phenomena
(Tsai-i, 災異) in Han China; the Memorandum
of Sui Hung(眭弘)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Enthronement of Emperor Hsüan(宣帝)

Chung, Dong-chu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memorandum submitted by Prefect of Tallies and Staffs of Authority (*fu-chieh-ling*, 符節令) Sui Hung to the court in B.C. 78. Interpreting a series of extraordinary phenomena of the time, which appears fabricated, as the Mandate of Heaven (天命), he insisted on the voluntary abdication of Emperor Chao (昭帝) to Kung-sun Ping-i (公孫病已), who later ascended the throne and was called Emperor Hsüan. A study on the memorandum and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enthronement of Emperor Hsüan will help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political thinking and the politics of the time.

The memorandum, which submitted immediately after the impeachment of Small Treasurer (*shao-fu*, 少府) Hsü Jen (徐仁), the superior official of Sui Hung, represented the opinion of the party in opposition to Regent Huo Kuang (霍光). Though Sui Hung was executed in consequence, the figures, who not only kept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egent but also supported Kung-sun Ping-i, and the Regent himself tacitly accepted Sui Hung's claim as an alternative in case of emergency. This fact proved to be true by the enthronement of Emperor Hsüan in B.C. 74.

Sui Hung, by saying *Han-chia-Yao-hou-shuo* (漢家堯後說), the claim that the Han imperial clan as descendants of Yao has the destiny of voluntarily transmitting its rule to another, presented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succession of Kung-sun Ping-i to the throne, and ingeniously transformed the political thinking of Tung Chung-shu(董仲舒). The fabrication of the portent shown in the memorandum, that insects ate leaves following the outline of characters, appeared to be a clear transition from the *Tsai-i* theory of Tung Chung-shu, and prepared the way further to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Ch'an-wei*(讖緯), the art of divination based on prognostication texts and apocrypha.